

## 특본 “흑과 백의 질서로 역사를 본다”



◀북위 황흥9년(471)에 조각한 '황흥조상', 미륵불과 불전도를 조각, 정교하고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왔다.



◀당나라의 대화가 오도자(吳道子)가 그렸다고 전하는 관세음보살상, 순천 선암사에 이를 모본으로 간직한 목관본이 있다.



◀중국에서 건축 즐겨 사용하는 홍탁(紅拓),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화려한 탁본으로 색다른 느낌을 준다.

### 쓰고 새긴 선인들의 정신 되살리는 작업 模寫 아닌 본연의 모습 찾는 독창적 예술 비문·범종등 탁본소재로... 훼손 조심해야

금석(金石)에 새겨진 글씨나 그림 문양 등을 종이에 대고 찍어내다 보면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탁본(拓本) 또는 탐본(槧本)이라 하는 이 작업은 단순히 모사(模寫)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독창적인 예술세계가 된다.

일반적으로 비문은 찬자(撰者)에 의해 글이 지어지고 서예가(書家)에 의해 글이 써지며 각인(刻入)에 의해 글이 새겨진다. 이러한 비문을 재현함으로써 탁본 하나에는 많은 사람들의 예술혼과 정신이 깃들게 된다. 여기에 바로 탁본의 묘미가 있다.

탁본은 세월의 이끼를 걷어내고 비문에 새겨진 고승성현(高僧聖賢)들의 가르침을 읽어내는 일이기도 하다. 누대로 역사가 내려오면서 우리 선인들은 바위와 돌, 쇠붙이 등에 당시의 역사와 글, 필적을 남겼다. 이 모든 것들은 오래되면 필수록 풍화되고 부식과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럴 때 탁본을 해두면 그 글은 생생하게 살아나게 된다.

이제껏 탁본은 사학자들이 비석이나 바위에 새겨진 유물을 좀더 확실히 보기 위해 사용하면서 그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으나 약간의 기술만 익히면 일반인들도 충분히 탁본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특히 먹물이 주는 회화적 느낌은 우리의 정서와 맞닿아 옛부터 우리 조상들이 즐겨왔을 만큼 취미생활로 적격이다. 그러나 탁본의 문(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마음과 수행인의 자세가 필요하다. 탁본은 마음의 정서물, 예술의 세계를, 지식과 개성을, 참나를 찾아 주며 키워준다. 은은히 배어나는 묵향이 마음을 깨끗이 닦아준 이유에 설까? 탁본을 하다보면 거기에선 언제나 본연의 모습이 있다. 거짓이 없는 순수한 진실성이 보인다.

탁본의 대상은 감상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에서 고승의 비문이나 탑, 부도, 범종 등에 새겨진 문양 등 불교문화재는 탁본의 소재로 안성맞춤이다. 부처님의

말고 고운 소리에 환희하는 범종의 비천상 등 각종 문양이나 쇠구, 가사 등은 좋은 감상거리가 되고, 고승대덕들의 행적을 담고 있는 탐비나 사찰의 사적비 등은 좋은 연구자료가 된다.

1970년대 한국불교연구원이 탁본전시회를 연 이후 지난해 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 '신라·고려 고승전'에 이르기까지 불교문화물 소재로 한 탁본전시회가 간간히 열렸다. 96년 10월에 열렸던 '비화사와 구산선문 탁본전'은 차디찬 돌덩어리와 쇠붙이에 새겨넣은 문양의 아름다움을 종이 위에 되살려냈으며, 97년 9월에 있었던 '신라·고려 고승전'은 전국 사찰에 전해지는 비문을 재검토하고 정리해 불교문화와 고승들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특히 불교사학연구소는 비문에 대한 기존 연구가 고려이전의 것에 국한돼 있는 점을 감안 조선과 근대의 비문도 계속 발굴·탁본해 한국불교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탁본은 흐릿한 비문을 또렷이 읽어내거나 사라졌던 비문의 재 모습을 찾는 데도 그 몫을 톡톡히 한다.

충천 청평사(淸平寺) 문수원기(文殊院記)는 한국전쟁때 파괴돼 그 원형을 찾을 수 없었다. 88년 황수영박사(前 동국대총장)가 대웅전터에서 일부 발견된 비문을 토대로 복원을 시도했지만 원 비문의 1/3정도만을 집성한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다행히 이 비문은 1170년경 제작한 탁본이 전해져와 복원이 가능하게 됐다. 향토사학자 홍상익씨는 탁본을 재구성, 총 1천9백58자 중 39자를 제외한 1천9백20자를 확인, 문수원기 복원을 위한 기초토대를 마련, '97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탁본은 하나의 예술이며,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이다. 올바른 지식과 기술, 그리고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이 필요하며, 한번 실수로 귀중한 문화재에 손상을 입히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윤기석 기자



④채탁 탁본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인만큼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먹의 색을 얇게 하여 몇번이고 두드려서 먹의 농도를 맞춰야 하며 뒤부터 아래로 또는 글자를 따러가면서 종이 위에 수직으로 두드려야 한다. (사진=고영태 기자)

### 연세대박물관 7월3일까지 '서안비림전' 황흥조상·불공화상비 등 110여점 전시

중국의 서법예술을 대표하던 대가들의 명품서각 3천여점이 즐비해 있는 서안비림(西安碑林), 서상(書堂) 왕희지의 글자를 집자해 새긴 삼장성교서비(三藏聖教序碑), 안진경이 최초로 썼다는 다보탑감응비(多寶塔感應碑) 등 중국인들이 자랑하는 이 비석 숲의 정수를 국내에서도 볼 수 있다.

연세대박물관(관장 김인희)이 특별기획한 '서안비림전'은 7월3일까지 서안비림의 명품 중 가려 뽑은 1백10여점의 탁본을 한자리에 모은 것.

이번 전시는 진나라부터 근대에 이르는 각종 명비(銘碑), 묘지명(墓誌銘), 조상기림(造像記銘)을 소개하고 있으며 눈길을 끄는 불교작품도 꽤 많아 마치 중국서에서 및 불교사상사의 책을 펼쳐놓은 듯하다.

집자비(集字碑)를 통해 보는 왕희지 행서의 진수, 당나라 초기 예서의 원형을 보여주는 구양순 등의 글씨, 당당한 힘과 조형성이 어우러진 자연스러움이 가득한 안진경의 글씨 등에는 문자가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함축된 예술미가

## 中 서법예술의 정수 '한자리'

담겨있다. 또 북위때(489년) 세워진 휘보사(魏福寺)의 창건과정과 모습을 적은 휘보사비, 당나라의 고승 지해법사(智海法師)가 금강경을 전수한 사실을 기록한 지해법사비, 「역승인 불공화상(不空和尚)」이 당나라 수도 장안에서 불경을 번역하고 포교하던 상황을 담은 불공화상비 등은 중국 당나라 불교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한편 황흥조상(黃興造像), 건승사조상비(建勝寺造像碑) 등 불상을 조각한 내력을 적은 발원문과 공양주 등을 새긴 조상기 등은 형상

(조각)과 글씨(서예)를 함께 볼 수 있어 일반 비나 불상과는 다른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서안비림은 양조강 하류의 초산비림(草山碑林)과 함께 중국이 자랑하는 대표적 비석 숲으로 송나라때 황폐해지던 옛 석각을 보존하기 위해 처음 조성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62년 중국정부로부터 중점문화유산보호단위(국보급문화재)로 명명됐으며, 서안비림박물관은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50대 중점박물관으로 지정돼 있다. (석)



①물부리기 물을 비를 때는 위에서 아래로, 중앙에서 좌우로 종이 가 구겨지지 않고 잘 퍼지도록 뿌린다.

탁본을 위한 준비물은 종이, 먹물, 솜방망이, 솔, 수건, 물부리기 등. 종이는 화선지도 가능하나 이보다 조금 두꺼운 옥당지가 좋으며, 먹물은 서예가용 고급먹물을 사서 하거나 직접 갈아서 쓰는 것이 좋다.

탁본 재료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솜방망이 제작. 마에불과 같이 면이 거칠거나 마말이 심한 것은 쓸이나 양겨를 넣어 만들고, 보통은 좁쌀이나 솔을 채워 사용한다. 다만 다양한 크기의 솜방망이를 준비, 대상물의 크고 작음 등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탁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찰에서는 스님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폐사지에서는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행정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격적인



②기포빼기 물을 종이에 버리면 비면과 종이 사이에 기포가 생기는데, 물수건을 사용해서 밖으로 빼낸다.

### 올바른 탁본방법

탁본의 시작과 끝은 언제나 탁본할(한) 대상물을 깨끗이 씻고 닦는데 있다. 우선 대상물을 물수건으로 닦아낸 뒤 종이를 스킨타이프 등으로 고정시킨 후 불꽃, 물수건 등으로 표면에 밀착시킨다. 종이가 어느정도 마르면 솜방망이에 먹물 묻혀 같은 농도로 찍어내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작은 기포나 주름을 없애기 위해 솔로 완전히 밀착시키는 일과 종이의 물기를 측정하는 것. 완전히 밀착되지 않으면 종이가 들떠 정확한 형태가 드러나지 않게 되고 물기가 많으면 번지거나 왜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 탁본이 간단한 듯 하면서도 어렵다



③솔질 기포나 주름을 없애거나 비면에 종이를 완전히 밀착시키기 위해 솔을 사용. 조심스럽게 두드린다.

### 종이는 화선지·옥당지 쓰여 관리자에게 꼭 사전허가 기름잉크 복사는 유물훼손

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많은 경험을 통해 자기 손의 감각과 육감으로 직접 체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히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탁본은 회화적 느낌을 주기 위해 먹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어 연잉을 얇게 하고 연꽃을 짙게 하면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갖가지 색을 이용, 탁본하는 것이 유행인데 이따한 색다른 느낌을



⑤떼어내기 채탁된 종이는 고정시킨 테이프를 제거한 뒤 한쪽부터 천천히 떼어내는 것이 좋다.

준다. 탁본을 했다고 해서 그 비가 훼손되거나 예술적 가치와 중요성이 모두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탁본기술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초심자들이나 탁본을 돈벌이로 여기는 장사꾼들이 마구잡이로 탁본을 하는 것이다. 특히 로울러를 사용, 기름잉크로 복사하는 행위는 유물의 생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유물에 잉크를 묻혀 미관상에도 좋지 않다.

탁본은 채탁을 하는 개인의 기술과 개성, 창작의욕, 그리고 유물을 대하는 겸허한 마음을 담을 때 예술적 가치와 감상의 가치가 뒤따른다. 목안이 은은히 배어나는 탁본의 멋은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정신에 있다. (석)